



하루에 하나



2026.6.18

JUNE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달러 환율

1,513.40원 (+1.80원)

KOSPI

8,864.24 (+137.64, +1.58%)

KOSDAQ

1,031.96 (+13.28, +1.30%)

국고채 10년 금리

4.071 (-0.039%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기업분석

엔에프씨	높아지는 ODM 사업가치 [박종대]
삼성전자	성과급 반영해도 실적 전망치 상향 [김록호]
케이씨리아이	IPO 주관사 업데이트: IP 사업화, 디지털트윈 수출 확대 [권태우]

산업분석

증권	다시 높아진 밸류에이션 매력도 [고연수]
----	------------------------

글로벌리서치

콘스텔레이션에너지	합법적 새치기 [김시현]
라인메탈	2분기부터는 기대감을 성장률로 증명해야 하는 구간 [채운샘]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삼성SDI, 대한항공, 대덕전자, HD건설기계, 오리온, 한국콜마, SGC에너지, 테스, 에치에프알

2026년 06월 18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Not Ra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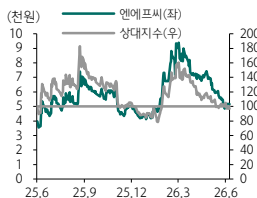
현재주가(6.17) 5,16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1,031.96
52주 최고/최저(원)	9,400/3,645
시가총액(십억원)	92.2
시가총액비중(%)	0.02
발행주식수(천주)	17,863.6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86.7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3
외국인지분율(%)	4.39
주요주주 지분율(%)	
유우영 외 3인	50.62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00	124
영업이익(십억원)	18	22
순이익(십억원)	15	19
EPS(원)	840	1,041
BPS(원)	N/A	N/A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31	43	40	72
영업이익	2	4	(7)	13
세전이익	2	4	(7)	12
순이익	2	4	(5)	10
EPS	105	206	(293)	563
증감율	(67.4)	96.2	적전	흑전
PER	41.7	21.4	(7.8)	7.5
PBR	1.4	1.3	0.7	1.2
EV/EBITDA	20.1	15.4	0.0	5.6
ROE	3.3	6.0	(9.5)	15.4
BPS	3,206	3,404	3,092	3,660
DPS	20	40	0	60



Analyst 박중대 forsword@hanafn.com

엔에프씨 (265740)**높아지는 ODM 사업가치****2분기 영업이익 48억원(YoY 55%) 예상**

2분기 연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58%, 55% 성장한 266억원과 48억원 수준이 가능할 전망이다. 소재와 ODM 사업이 모두 견조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ODM 사업의 경우 주요 고객사들 주문이 1분기 대비 20%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매출 비중 1~2위 E사, S사의 매출이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신규 고객사 K사 매출이 큰 폭 증가하면서 매출 순위 3위로 올라섰다. 이외 톱 5 고객사들이 SKU를 늘리면서 실적 개선을 견인하고 있다. 톱10 고객사 가운데는 해외 고객사도 추가되면서 점점 고객사와 카테고리 바운더리를 넓히고 있다. 원료/소재 사업의 경우 전년도 낮은 베이스 영향으로 2분기 YoY 20% 이상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내부 목표보다 높은 신장세이다. 신규 원료 락토파DRN 해외 매출이 북미를 중심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국내 ODM 시장 호황으로 세라마이드/유화제/보습제 등 주요 상품군이 고른 성장세다. 참고로 세라마이드 제품군이 전체 소재 매출의 40%, 유화제가 10~15%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높은 R&D 역량으로 ODM 사업 높은 가시성

엔에프씨는 원료/소재 분야 높은 R&D 역량을 기반으로 ODM 사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고, 사업 규모가 크게 레벨업하고 있다. K뷰티 글로벌 모멘텀과 함께 i) 국내 ODM 시장 수요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ii) 엔에프씨는 이미 원료/소재 사업에서 국내외 높은 인지도를 형성해 높은 상태이고, iii) 높은 기술 수준으로 유사 매출 규모의 ODM 전문 업체 대비 서비스 범위와 연속성 측면에서 압도적인 경쟁 우위에 있다. 특정 제품이 히트했을 때 ODM 물량을 대형사에 뺏기지 않고 온전히 판매 증가를 수주와 매출로 이룰 수 있다는 말이다.

ODM 경쟁력 입증하면서 Re-rating 국면 진입 예상

ODM 사업은 2025년 성공적으로 안착했고, 2026년 i) 메이저 고객사들의 글로벌 판매 지역 확대 전략으로 기존 히트 제품의 추가적인 물량 증대가 기대된다. ii) 메이저 고객사들 대부분 품목 확대가 예정돼 있으며, iii) 신규 고객사 증가 효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2026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998억원(YoY 39%), 180억원(YoY 43%, OPM 18%)으로 추정한다. 현재 주가는 12MF PER 5.5배에 불과하다. ODM 사업의 차별적 경쟁력을 실적으로 입증하면서 Re-rating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2026년 6월 18일 | 기업분석_Earning Preview

BUY (유지)

목표주가(12M) 480,000원(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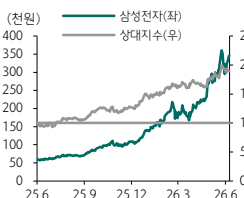
현재주가(6.17) 346,5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8,864.24
52주 최고/최저(원)	360,500/58,000
시가총액(십억원)	2,025,735.5
시가총액비중(%)	27.93
발행주식수(천주)	5,846,278.6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29,458.8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7,550.3
외국인지분율(%)	47.61
주요주주 지분율(%)	
삼성생명보험 외 15인	19.70
국민연금공단	7.84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695,520.9	851,167.2
영업이익(십억원)	359,258.4	471,999.2
순이익(십억원)	296,838.5	384,100.2
EPS(원)	43,912	57,352
BPS(원)	106,072	159,902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300,870.9	333,605.9	750,289.7	948,366.9
영업이익	32,726.0	43,601.1	391,641.5	572,981.1
세전이익	37,529.7	49,481.5	396,988.3	578,332.3
순이익	33,621.4	44,261.0	317,829.0	461,450.2
EPS	4,950	6,564	47,646	69,405
증감율	132.29	32.61	625.87	45.67
PER	10.75	18.27	7.20	4.94
PBR	0.92	1.87	3.02	2.09
EV/EBITDA	3.60	7.67	4.18	2.48
ROE	9.03	10.85	54.49	50.74
BPS	57,930	63,976	113,610	163,909
DPS	1,446	1,668	14,850	22,038



Analyst 김록호 rookkim@hanafn.com
RA 김영규 kug1019@hanafn.com

삼성전자 (005930)**성과급 반영해도 실적 전망치 상향****2Q26 Preview: 예상보다 강한 메모리 가격**

삼성전자의 26년 2분기 매출액은 179조원(YoY +140%, QoQ +34%), 영업이익은 92조원(YoY +1,850%, QoQ +61%)으로 전망한다. DRAM의 평균판매가격이 당초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파악되어 가격 가정을 상향 조정한다. 서버 및 PC DRAM의 견조한 가격 흐름 속에서 LPDDR 가격의 상승폭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파악된다. 중화권 및 로컬 스마트폰 업체들의 스마트폰 물량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Nvidia를 필두로 AI CPU에 탑재되는 LPDDR 수요 강도가 강한 것으로 추정된다.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한 여타 사업부는 계절성 및 원가 부담 속에 전분기대비 부진한 실적이 전망된다. 금번 실적 전망부터 26년 2~4분기에 DS 부문 영업이익의 10% 수준을 성과급 총당금으로 반영한다.

일반 DRAM에 이어 HBM도 가격 상승에 기여

일반 DRAM은 25년 하반기 이후 2026년 연중으로 실적을 견인해 왔다. 2027년에는 HBM이 실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사의 제품 출하 지연 등으로 인해 2026년 HBM 4의 실적 기여도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축소되었다. 당초에는 HBM 3E가 출하된지 1년이 지나면서 가격은 하락 추세에 있고, HBM 4가 이를 상쇄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라 예상했었다. 2027년은 HBM 4 비중이 역전되면서 Blended ASP 상승이 가능한데, 이와 더불어 일반 DRAM의 가격 상승을 감안한 가격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일반 DRAM 가격은 2026년 HBM 가격 협상이 진행되던 25년 하반기대비 약 4배 상승해 있기 때문에 2027년 HBM 가격은 기존대비 상승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HBM 가격 협상이 윤곽이 잡히게 되면 2027년 실적 전망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저평가 받을 이유 없다. 목표주가 재차 상향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이견 'BUY'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480,000원으로 상향한다. 2027년 영업이익을 기존대비 8% 상향했고, 12개월 선행 추정치에서 2027년 가중치가 확대되었다. 아울러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멀티플 레벨업을 반영해 메모리 및 파운드리 부문에 적용했다. 2027년 영업이익이 상향되었는데, 해당 전망치에는 영업이익대비 10%의 성과급 총당금을 반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PDDR의 예상보다 높은 가격을 반영해 26년 2분기 및 3분기 가격 가정을 기존대비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2027년 영업이익이 상향 조정된다. 2026년 진행될 주주환원도 주요 기대 포인트이다. 2026년 FCF는 약 308.8조원으로 전망되는데, 이중 50%를 주주환원에 이용하면 약 153.2조원에 달한다(24~25년 초과환원분 제외). 여기에 2025년 FCF 50% 내 자사주 및 배당 비중을 적용하면, 2026년 자사주는 66.4조원, 배당금은 약 77조원에 달한다. 이는 주당 배당액 14,850원에 달하는 금액이며, 현재 주가 대비 배당수익률 4.3% 수준이다. 최근 1개월 이상 삼성전자의 주가가 여타 메모리 업체대비 언더퍼폼하고 있는데,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투자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2026년 06월 18일 | 기업분석_스몰캡_Report

Not Rated

현재주가(6.17) 2,61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1,031.96
52주 최고/최저(원)	6,550/2,495
시가총액(십억원)	19.5
시가총액비중(%)	0.00
발행주식수(천주)	7,486.4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71.7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0.3
외국인지분율(%)	3.29
주요주주 지분율(%)	
이재형 외 1인	44.55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N/A	N/A
영업이익(십억원)	N/A	N/A
순이익(십억원)	N/A	N/A
EPS(원)	N/A	N/A
BPS(원)	N/A	N/A

Stock Price**Financial Data**

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N/A	13.1	13.9	16.6
영업이익	N/A	1.1	(3.7)	(3.5)
세전이익	N/A	1.3	(4.1)	(3.1)
순이익	N/A	1.2	(3.0)	(3.9)
EPS	N/A	210	(449)	(515)
증감율	N/A	N/A	(313.81)	14.70
PER	N/A	0.00	N/A	N/A
PBR	N/A	0.00	1.28	1.11
EV/EBITDA	N/A	-3.03	N/A	N/A
ROE	N/A	10.08	(14.05)	(11.96)
BPS	N/A	1,946	4,063	4,544
DPS	N/A	(38.6)	(70.5)	(49.8)



Analyst 권태우 tkwon@hanafn.com
RA 윤채리 yooncherry@hanafn.com

케이쓰리아이 (431190)**IPO 주관사 업데이트: IP 사업화, 디지털트윈 수출 확대****국내 XR 미들웨어 솔루션 개발 기업**

케이쓰리아이는 2000년 설립된 XR 미들웨어 기반 콘텐츠 플랫폼 기업이다. 이미지 트래킹·자세 인식·인터랙션 처리 등 원천기술을 결합해 국내 개방형 미들웨어 'Universe XR Framework'를 사업화했고, 이를 토대로 AR·VR·MR 실감 콘텐츠와 디지털트윈 솔루션을 공급한다. 조달청 발주의 공공 XR 콘텐츠 구축이 본업이며, 디지털트윈 시티 플랫폼 'XR Meta City'와 엔비디아 옴니버스 연동 'Neuro Twin X'로 적용 영역을 산업·도시 단위로 확장했다. 2025년 연결 매출은 166억원(+19.7% YoY)으로, XR 실감콘텐츠 구축이 중심을 이루는 가운데 자체 IP 기반 B2C와 해외 수출이 새로운 축으로 더해지고 있다.

콘텐츠 직접 운영·자체 IP로 수익 구조 전환

동사의 사업 구조는 콘텐츠를 납품에서 직접 보유·운영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년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IMMERSIFY KL' 미디어아트 전시관을 개관해 콘텐츠를 직접 운영하며 현지 수요를 확인한 데 이어, 2026년 4월에는 자체 IP '뎀프렌즈'를 적용한 체험 공간 '킨더키노' 1호점을 개관하며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킨더키노는 아시아 최초로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한 콘텐츠 제작 역량을 기반으로 하며, 회차 상영 방식에 따라 재방문율이 높고 구축·갱신 비용 부담이 낮아 반복적 매출로 연결된다. 자체 IP는 운영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치가 누적되는 만큼, 수익성 구조를 전환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디지털트윈 플랫폼, 해외 수출로 확장

디지털트윈 플랫폼은 국내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해외 수출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지난 10월 'GITEX Global 2025'에서 WebGPU 기반 디지털트윈 시뮬레이션과 AI 초고해상도 복원 기술을 시연했고, 이를 계기로 인도 항공데이터 분석기업 헬로지오(HelloGeo)와 'XR Meta City' 수출 및 드론 영상 기반 3D 디지털트윈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드론으로 취득한 영상을 토대로 도시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3D 지형·건축물 데이터가 미비한 지방 중소도시와 신흥국에서 활용도가 높다. 이로써 아시아 공간정보 시장을 겨냥한 수출 기반이 구체화되고 있다.

공공 수주 기반의 안정성과 손익 개선 경로

신사업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본업인 공공 수주는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조달청 발주를 중심으로 구축 실적을 꾸준히 확보해 왔으며, 2025년에는 포항 환경학교와 진주 공립과학관 프로젝트를 연이어 수주했다. 2024년 말 체결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R&D 플랫폼 구축 사업(39.6억원)도 2026년 11월까지 매출로 반영되며 수주잔고를 뒷받침한다. 2025년 실적은 외형이 확대됐음에도 신사업·R&D 투자가 집중되며 영업손실이 증가했고, 올해 1분기 역시 공공 사업의 계절성으로 외형 회복이 제한적이었다. 다만 손실의 상당 부분은 자체 IP와 해외 수출 기반을 다지기 위한 선투자 성격이 강한 만큼, 신규 사업이 매출에 기여하는 국면에서 적자 폭은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2026년 6월 18일 | Global Equity

콘스텔레이션에너지(CEG.US)

합법적 새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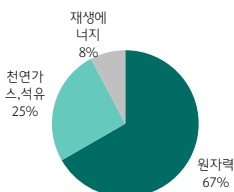
미국

TP(컨센서스) 365.81 USD
CP(6.16) 268.00 USD

Key Data

국가	미국		
상장거래소	나스닥		
산업 분류	유틸리티		
주요 영업	전기 공의 사업체		
홈페이지	www.constellationenergy.com		
시가총액(십억USD)	97.1		
시가총액(조원)	147.0		
52주최고/최저(USD)	412.7/240.5		
주요주주 지분율(%)			
VANGUARD GROUP	10.6		
CAPITAL GROUP COMPANIES INC	6.5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0.3	(26.7)	(13.0)
상대	(1.1)	(37.2)	(37.5)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USD)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25,533	25,533	33,758	34,795
영업이익	3,086	3,086	6,918	7,443
순이익	2,319	2,319	4,515	4,814
EPS(USD)	9.4	9.3	11.7	13.6
EPS(YOY, %)	0.0	(1.2)	26.4	16.1
ROE(%)	31.1	16.8	20.0	17.0
PER(배)	26.9	38.1	22.8	19.7
PBR(배)	5.3	7.6	3.4	3.5
배당률(%)	0.6	0.4	0.6	0.7

자료: CEG, Bloomberg 시장예상치, 하나증권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PJM의 패스트트랙 승인. 그리드 연결 최대 7년에서 10개월로 단축

FERC는 PJM이 제안한 EIT(Expedited Interconnection Track; 송전망 신속 연계 트랙)를 최종 승인했다. 기존 전력망 연결 방식과는 구분되는 일시적인 프로세스로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긴급한 전력 수요를 신속하게 충족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계약 체결 후 3년 안에 실제 상업 운전을 시작해 전력 생산이 가능한 발전소를 대상으로 서류 제출부터 전력망 연결 계약(GIA)까지 걸리는 시간을 10개월로 단축했다.** PJM은 연간 최대 10개의 프로젝트를 심사할 예정이다. PJM 소속의 미국 최대 데이터센터 밀집 지역인 북부 버지니아는 선착순 방식의 심사 제도와 IRA 등으로 급증한 대기열로 인해 그리드 연결 대기가 최대 7년까지 지연된 상황에서 신속한 상업 운전이 가능한 발전원에 대해서는 10개월로 대폭 단축된 패스트트랙을 제공하는 것이다. 7월 3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027년 말 종료될 예정이다.

PJM의 전례없이 빠른 규제 속도

PJM의 데이터센터 캐파 비중은 31%로 미국 최대의 데이터센터 밀집 시장이며 최소 2030년까지 이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2위 ERCOT 20%). PJM의 규제는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2026년 1월 공개된 이사회 결정 사안(CIFP)은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화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1) 6월 10일 승인된 EIT, 2) 자체 신규 발전원 확보(BYONG), 3) 온사이트 발전이 없는 데이터센터라도 일단 전력망에 연결하고 비상 상황시 강제 차단(Connect-and-manage)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빠르게 대량으로 발전이 가능한 에너지원에 프리미엄 부여 합리적

Calpine 인수 이후 CEG의 시장별 캐파는 PJM 49%, ERCOT 23%, CAISO 10% 등으로 추정된다. 인수 이전 PJM 비중이 거의 70%였지만 Calpine의 ERCOT 비중이 높아(43%) 조정되었다. 다만 ERCOT 에서도 이미 작년 6월 상원법안 6호를 통과시키며 비슷한 기초를 이어가고 있어 시장 관점에서는 PJM과 ERCOT을 주요 시장으로 하는 CEG 입장에서 모두 유리하다. CEG는 이미 Talen, CPower, Google, Amazon, Microsoft와 연합체를 구성해 전력 시장 개척을 주도하고 있다. 이번 EIT 승인으로 Crane 프로젝트(Microsoft와의 원전 재가동 PPA)는 2027년 이전 가동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9월부터는 용량 부족 대안으로 만든 RBP 양자계약 체결도 시작될 예정이다. '빠르게 대량으로' 발전이 가능한 에너지원에 프리미엄 부여가 합리적인 시점이다.

2026년 6월 18일 | Global Equity

라인메탈 (RHM.DE)

2분기부터는 기대감을 성장률로 증명해야 하는 구간

독일

TP(컨센서스) 1,865.8 EUR
CP(6.16) 1,145.6 EUR

Key Data

국가	GERMANY
상장거래소	Xetra
산업 분류	산업재
주요 영업	우주항공 & 국방
홈페이지	www.rheinmetall.com
시가총액(십억유로)	54.3
시가총액(조원)	95.5
52주최고/최저(유로)	2008/1099.2
주요주주 지분율(%)	
블랙록	6.86
뱅크오브아메리카	4.33

Financial Data

(십억유로)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7.7	9.9	14.2	19.2
영업이익	1.3	1.6	2.5	3.7
순이익	0.7	0.7	1.7	2.5
EPS(EUR)	17.8	22.3	36.9	53.9
EPS(YOY, %)	36.9	25.0	65.6	46.1
ROE(%)	19.5	15.4	30.4	34.5
PER(배)	35.6	68.1	31.5	21.6
PBR(배)	6.6	14.3	8.4	6.6
배당률(%)	1.3	0.7	1.4	2.0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Analyst 채운샘 unsam1@hanafn.com

1Q26 매출액 19.4억유로(YoY +7.7%), 영업이익 2.2억유로(YoY +17.3%)

1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다. 이는 기동과 탄약 부문(매출비중 81.8%)의 매출 성장이 시장 기대만큼 가시화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매출액은 19.4억유로로 전년대비 7.7% 증가했다. 부문별 매출 성장 기여도는 Naval Systems(함정), Air Defence(방공), Digital Systems(디지털), Vehicle Systems(기동), Weapon & Ammunition(탄약) 순이었다. 함정 매출액은 0.8억유로를 기록했다. 3월 1일부로 인수가 완료되면서 1분기 실적에는 약 1개월치 영업실적만 반영됐다. 독일 정보수집함, 불가리아 초계함 등 신규 선박 건조 매출 인식과 약 0.2억유로의 서비스 매출이 발생했다. 2분기부터는 3개월치 영업실적이 온전히 반영될 예정이다. 방공 매출은 1.9억유로로 전년대비 42.2% 증가했다. 큰 폭의 성장은 유럽 향 Skynex(네트워크 방공체계), Skyranger(차량 탑재 방공체계) 매출 인식 확대에 기인한다. Skyranger가 유럽 방공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만큼 생산능력 확대(포탑 연 70~100개→연 400개 계획)를 기반으로 수주와 실적은 점진적인 우상향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매출액은 3.5억유로로 전년대비 15.9% 증가했다. TaWan 디지털화 프로젝트 매출 인식 본격화, Blackned 연결 편입 효과에 기인한다. 기동 매출은 9.9억유로로 전년대비 3.4% 성장했다. 유럽/해외 고객향 보병전투차 부품, 독일향 전술차량 램프업, 서비스 활동 증가에 기인한다. 아직 고객의 주문이 확정되지 않아 선행 생산이 완료된 군용 트럭 매출이 지연됐다. 탄약 부문 매출은 6.0억유로로 전년대비 0.3% 증가했다. 헝가리 탄약 패키지, 우크라이나형 포병 탄약 부품으로 높은 매출 수준은 유지됐으나 전년동기 기저가 높았던 점과 납기 지연이 영향으로 성장률은 제한적이었다. 영업이익은 2.2억유로로 전년대비 17.3% 성장, 영업이익률은 11.6%로 0.9%p 개선됐다. 매출 성장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 방공 부문 영업레버리지 효과에 따른 수익성 개선, 함정 부문 연결 편입 효과가 주로 영향을 미쳤다.

강한 실적 가이드를 신뢰하지 않는 시장

수주잔고는 494억유로(Frame Backlog 제외 기준)로 약 5년치 일감을 보유 중이다. 러-우 전쟁 발발 이후 수주잔고는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중장기 실적 성장성을 인정받아 2025년 PER은 58배까지 상승한 바 있다. 그럼에도 최근 3개 분기 연속으로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주가는 고점 대비 약 42% 하락했고 현재 Fwd PER은 28배 수준까지 낮아졌다. 최근 분기 실적 발표에서 기존 높은 가이드가 유지됐음에도 주가가 부진했던 배경이다. 따라서 향후 핵심 관전 포인트는 쌓여 있는 수주잔고가 강한 매출 성장으로 실제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가 될 것이다. 사측은 2분기 매출 성장률이 전년대비 50%를 초과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는 1분기 실적 부진의 원인이었던 1) 기동 부문 2억 유로 규모 군용 트럭 납기 지연 해소, 2) 탄약 부문 1억 유로 매출 인식 지연 해소에 기인한다. 기대감이 낮아져 있는 만큼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경우 시장의 관심은 다시 확대될 것으로 판단한다.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6/15	322,500	346,500	7.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삼성SDI (006400.KS)	6/15	539,000	550,000	2.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센터향 BBU/ESS 증가와 유럽 EV 배터리 증가로 실적 개선 기대 StarPlus Energy를 활용한 현지 생산, LFP 라인 전환을 통해 미국 내 공급망 경쟁력 강화
대한항공 (003490.KS)	6/15	26,600	28,800	8.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물운임, 코로나1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급등해 유가 상승의 부담을 상당히 상쇄 2026년 12월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마무리할 예정. 합병 이후 실적 개선 기대
대덕전자 (353200.KS)	6/15	165,200	174,200	5.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서버향 MLB와 메모리 패키지 기판 수요 증가로 고부가 반도체 기판 매출 확대 기대 FC-BGA 가동을 회복과 자율주행·AI향 신규 수요 진입으로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
HD건설기계 (267270.KS)	6/15	142,600	155,900	9.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HD현대인프라코어 합병 이후 사업 통합 시너지가 본격화되며 외형과 수익성 동반 개선 인프라 투자, 선진시장 수요 회복, 산업·방산용 엔진 성장으로 중장기 이익 체력 강화
오리온 (271560.KS)	6/15	135,500	135,100	-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베트남·러시아 매출 큰 폭으로 성장하며 해외 법인 중심의 실적 개선세 뚜렷 중국에서 고성장 중인 간식 및 온라인 채널에서의 보폭 확대 고무적
한국콜마 (161890.KS)	6/15	86,400	88,400	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디 브랜드의 글로벌 수출 확대, 선풍기·스킨케어 주문 증가로 ODM 본업 성장성 강화 국내 법인 고성장과 고마진 제품 믹스 개선을 바탕으로 실적 개선 기대
SGC에너지 (005090.KS)	6/15	58,400	56,300	-3.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전·건설 부문 수익성 개선과 SMP 상승, REC 판매 확대가 맞물리며 영업이익 회복세 친환경 발전과 AI 데이터센터용 전력 인프라 확장으로 중장기 성장 모멘텀 확보
테스 (095610.KQ)	6/15	182,200	169,400	-7.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메모리 투자 확대와 NAND 투자 재개 기대가 전공정 장비 수요 회복으로 연결 핵심 장비 경쟁력을 기반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설비투자 확대 시 수혜 가능
에치에프알 (230240.KQ)	6/15	26,400	26,650	0.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월 미국 AWS-3 재경매를 시작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주파수 경매 예정 AT&T의 CAPEX 확대와 중국 통신장비 업체 퇴출에 따른 북미 통신장비 투자 수혜 기대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2.53%	-6.36%p	+83.05%	+1.78%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증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생명 (032830.KS)	6/15	385,500	447,000	15.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 판매 확대와 신계약 CSM 증가로 보험 본업의 이익 체력 개선 삼성전자 배당수익 및 자회사 연결 손익 증가로 투자손익 크게 개선
신세계 (004170.KS)	6/15	695,000	753,000	8.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화점 본업의 외국인 매출 확대와 리뉴얼·팝업 효과로 매출 및 영업이익 개선 흐름 지속 면세점 흑자 전환과 신세계인터내셔널 등 자회사 수익성 회복으로 실적 개선 가시성 상승
오리온 (271560.KS)	6/15	135,500	135,100	-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베트남·러시아 매출 큰 폭으로 성장하며 해외 법인 중심의 실적 개선세 뚜렷 중국에서 고성장 중인 간식 및 온라인 채널에서의 보폭 확대 고무적
테스 (095610.KQ)	6/15	182,200	169,400	-7.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메모리 투자 확대와 NAND 투자 재개 기대가 전공정 장비 수요 회복으로 연결 핵심 장비 경쟁력을 기반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설비투자 확대 시 수혜 가능
삼성전기 (009150.KS)	5/26	1,340,000	2,032,000	51.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서버 랙 전력밀도 상승과 800VDC 전력 인프라 도입으로 서버용 MLCC 탑재량 증가 타이트한 수급과 가격 조건 개선이 하반기 실적 레버리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OCI홀딩스 (010060.KS)	4/20	267,500	299,500	11.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페이스X와 다년 공급계약 협의 보도로 우주데이터센터향 신규 수요처 확보 기대감 상승 폴리실리콘 CAPA 증설 계획 구체화/가속화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 기대
SK하이닉스 (000660.KS)	4/13	1,027,000	2,521,000	145.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1Q26 Preview 매출액 53조원(YoY +203.0%), 영업이익 37조원(YoY +395.0%) 전망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삼성전자 (005930.KS)	4/1	167,200	346,500	107.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POSCO홀딩스 (005490.KS)	4/1	332,500	384,500	15.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1Q26부터 대수리 영향 해소와 자회사 실적 개선으로 안정적 수익성 회복 전망 수입산 철강 규제·중국 생산 규제 수혜로 철강 부문 스프레드 확대 기대
LG이노텍 (011070.KS)	4/1	293,500	1,248,000	325.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환율 + 롱테일효과 + 기판 수요 호조로 2Q26 호실적 기대감 존재 전장 및 서버용 FCBGA 가동률 상승에 따른 가파른 실적 개선 전망

증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2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36.56%	-23.08%p	+59.97%	-21.30%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증가기준 -10%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A반도체 (395160)	2026.02.27	2026.02.27	29,560	56,0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WON 초대형IB &금융지주 (0154F0.KS)	2026.02.24	2026.02.24	15,160	13,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지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
에셋플러스 코리아 대장장이액티브 (442090.KS)	2026.02.24	2026.02.24	25,365	36,9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방 산업의 경쟁 심화 속에서 부품, 장비, 소재 등 후방 산업(소부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장장이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ETF 반도체, 방산, 조선 등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 밸류체인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을 선별 편입. 국내 주요 수출주들의 실적 개선과 맞물려 시장 지수 대비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대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2025.03.04	13,000	18,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2025.11.24	339.12	6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비전력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03.23	2026.03.23	75.80	88.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XLE (미국 에너지)	2026.01.02	2026.01.02	45.65	55.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S&P500 에너지 업종 ETF. 에너지 섹터의 대형주 20여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ExxonMobil과 Chevron의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구성 트럼프 정부의 중남미 영향력 확장 시도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권 개입 상황이 미국 대표 원유 관련 기업들의 이익 증가 및 자산 회복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 유가 모멘텀은 제한되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개별 요인 주목
MADE (미국 제조업 기업)	2025.10.27	2025.10.27	30.66	38.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내 매출비중 조건 반영. 중대형 제조업, 제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ETF 관세 구조와 트럼프 정책의 지속성에 초점. 상호관세는 협상 여지가 있는 반면, 품목 관세는 협상 가능성이 낮아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공급망의 리쇼어링 현상 확대 전망. 정책 수혜 및 내수 익스포저 기반의 수혜 기대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증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6.14	6.15	6.16	6.17	6.18	6.19	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NAHB주택시장지수 (35, 이전치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5월 수출 물가 지수 (46.9%, 이전치 40.8%) 한국 5월 수입 물가 지수 (24.8%, 이전치 20.2%) 일본 6월 기준금리 결정 (1.0%, 이전치 0.75%) 중국 5월 광공업생산 (4.5%, 이전치 4.1%) 중국 5월 실업률 (5.1%, 이전치 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5월 수출 (E --, 이전치 14.8%) 일본 5월 수입 (E --, 이전치 9.7%) 유로존 5월 CPI F (E --, 이전치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6월 기준금리 결정 (E 3.75%, 이전치 3.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5월 PPI (E --, 이전치 6.9%) 일본 5월 CPI (E 1.5%, 이전치 1.4%) 	
6.21	6.22	6.23	6.24	6.25	6.26	6.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로존 6월 소비자기대P (E --, 이전치 -1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6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4.5) 미국 6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0.0) 미국 6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5.1) 미국 6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5월 신규주택매매 (E --, 이전치 -6.2%) 미국 5월 건축허가 F (E --, 이전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5월 PCE (E --, 이전치 3.8%) 미국 5월 근원 PCE (E --, 이전치 3.3%) 미국 5월 내구재 주문 P (E --, 이전치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5월 공작기계 수출 (E --, 이전치 37.4%) 미국 6월 미시건대 소비 자실리지수 (E --, 이전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5월 산업생산 (E --, 이전치 24.7%)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